

# 브로드밴드위원회의 교육 작업반 보고서 발간과 ITU의 관련 활동 동향

■ 박민정\*

## 1. 개요

브로드밴드위원회(Broadband Commission for Digital Development, BCDD)의 교육작업반(Working Group on Education)은 2013년 3월 ‘기술, 브로드밴드와 교육: 모든 아젠다를 위한 교육의 발전(Technology, Broadband and Education: Advancing the Education for All Agenda)’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는 교사와 학생들이 브로드밴드와 같은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의 접근성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떻게 이를 확장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다.

교육은 모든 이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인권이자, 지속가능한 개발을 가능하게 해주는 동력이다. UN은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며 2000년에 채택한 8개의 새 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up>1)</sup>의 2번째 목표로 ‘초등교육의 보편화(Universal Primary Education)’를 채택한 바 있다. 한편, ICT는 이러한 개발목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연구원, (02)570-4345, mjpark@kisdi.re.kr

1) MDG는 2000년 UN에서 채택된 의제로, 2015년까지 빈곤을 반으로 감소시키자는 범세계적인 약속임. 8개의 MDG 진척과정은 21개의 항목과 60개의 공식지표로 평가됨.

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도구로 인식되고 활용되어져 왔다. 2003년, 2005년 개최된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는 이러닝(e-learning)을 우선순위가 있는 활용분야(application)로 확인하고, 다른 활용분야와 함께 7번째 WSIS 활동방향(Action Line)으로 채택하여, 이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촉구하였다.

MDG 달성 촉진을 위해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on Union, ITU)과 UN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가 공동설립한 브로드밴드위원회는 브로드밴드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한 9개의 주요 이슈에 대해 작업반을 구성하여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권고안을 도출하고 있다. ‘교육작업반’은 ‘모든 이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sup>2)</sup> 증진을 목적으로 2011년 6월부터 활동을 개시하였으며, UNESCO의 Irina Bokova 사무총장이 동 작업반의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동 작업반이 최근에 발간한 보고서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ITU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교육과 ICT 관련 다양한 활동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목표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목표 5	산모건강의 증진
목표 2	초등교육의 보편화	목표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목표 3	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목표 7	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목표 4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목표 8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2) UNESCO는 2000년 다카르 세계교육회의에서 6대 EFA 목표를 채택하였음.

목표 1	유아교육의 확충	목표 5	2015년까지 성인 비문해율 50% 감소
목표 2	2015년까지 아동들에게 양질의 의무 초 등교육 제공	목표 6	2015년까지 초, 중등교육에서 양성격차 해소 및 양성 평등 달성
목표 3	청년과 성인의 학습 수요보장	목표 7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 2. 브로드밴드위원회 교육작업반 보고서 주요 내용

### (1) ICT와 교육 관련 현황

UNESCO에 따르면<sup>3)</sup> 2010년 기준, 초등학교 취학연령의 학교 밖 아동수가 6천 1백만 명이며, 이 중 절반정도는 학교에 가본 적조차 없다. 또 다른 7,100만 명의 아동들이 중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다. 성인 중 약 7억 9,300만 명의 인구가 문해력(literacy)이 떨어지며, 이 중 64%는 여성에 해당한다.

ICT 기술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 중 모바일 브로드밴드의 성장률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2012년 기준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40% 성장하였으며, 개도국의 경우 그 성장률이 78%에 달한다. 그 결과 전 세계 무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는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의 2배가 되었다.<sup>4)</sup>

한편, ICT 개발수준에 있어서의 격차는 지속되고 있다. ITU 조사<sup>5)</sup>에 의하면, 2011년 말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약 1/3(33%)에 해당하는 25만 명의 인구가 인터넷을 사용한다. 그러나 개도국의 경우 오직 해당인구 1/4(25%)만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며, 최빈개도국만 고려할 경우 이 수치는 약 6%까지 떨어지게 된다. 모바일 브로드밴드 접근성 면에 있어서도 큰 격차가 존재한다. 2011년 말 선진국의 모바일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51%에 달하나, 아프리카는 오직 4%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개도국에게 있어 브로드밴드의 보급에는, 가격, 접근성, 자국어 및 자국의 맥락에 맞는 콘텐츠 부족, 관련 문해력 부족 등의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

교육분야에서 기술에 대한 접속은 지난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증가추세 또한 국가, 지역을 걸쳐 불균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OECD 국가의 15세 아동 중 93%가 학교에서 컴퓨터 사용이 가능하며, 학생 8명 당 컴퓨터

3)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UIS). 2011. *Adult and Youth Literacy. UIS Factsheet, September 2011, No. 16.* Montreal, UIS.

4) ITU. 2012.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2012.*

5) ITU. 2012. *ITU World Telecommunication/ICT Indicators Database.*

1대를 보유하고 있다.<sup>6)</sup>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한국과 같은 나라의 경우 가정의 컴퓨터 접근성은 학교에서 보다 더욱 좋다. 한편, 개도국의 경우 오직 25%의 가정만이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20%만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 또한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아동 150명당 1대꼴로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다.<sup>7)</sup>

브로드밴드 접근성 그 자체만으로 교육의 질을 개선하거나 교육분야에서 항상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OECD 국가에서조차 교육분야에서 ICT의 사용의 정도와 그 질적 수준이 여전히 낮다. 교실내 학생들은 자료를 처리하고, 공유하기 보다는 단순히 자료 검색을 위해서만 컴퓨터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들을 현 교수모델 및 방식에 빠르게 통합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분야를 위한 교사 훈련을 개선하고, 적절한 교육자료가 지역 수요에 맞게 개발 및 공유될 것이 요구되고 있다.

## (2) 교육분야에서의 ICT 전략적 활용 방향

동 보고서는 ICT가 교육분야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교사 지원, 학생 지원, 모바일 교육, 여성과 소녀의 역량 강화 등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 1) 교사 지원

ICT는 교사의 업무를 간소화하고 수업준비의 효율성을 증대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디지털 칠판의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ICT는 교실내 교사의 전통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상적인 업무, 콘텐츠, 자료 등을 최적화시키는데 기여한다. 또한, ICT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개개인을 위해 교사자료 및 방법을 조정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생 관련 데이터 수집을 개선하고, 학생, 교사, 부모, 행정당국 간의 의사소통을 촉진시켜 줄 수 있다.

6) OECD. 2011. *PISA 2009 Results: Students On Line, Digital Technologies and Performance*, Vol. 6.

7) Kiptalam, G. K. and Rodrigues, A. J. 2010. Internet Utilization: A Case of Connected Rural and Urban Secondary Schools in Kenya.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ing and ICT Research*.

## 2) 학생 지원

아직, ICT가 배움의 결과를 증진시킨다는 확실한 직접적인 증거는 많지 않다. 이는 학교에서 컴퓨터 한 대당 학생의 비율이 꾸준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장비 비용의 하락, 학생용 기기의 출현, ICT 기기사용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 개발 등은 교육 부문에서 ‘학생 중심 접근방식’을 더욱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동 보고서는 또한 근래에 대규모로 수행되고 있는 1:1 이니셔티브를 소개하며, 그 효과성을 강조하고 있다. 1:1 모델에 따르면 모든 학생이 기기를 학교 안팎에서 항상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자료에 접근하고, 교사 및 급우들과 대화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교육방식이 실현되려면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학생이 필요한 기기가 없거나 보유한 기기의 성능이 떨어질 경우, 학교에서 적절한 기기를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다.

## 3) 모바일 학습

모바일 기술은 시공간 제약 없이 이용이 가능하며,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탄탄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보유한 모바일 기기는 교육부문에서 ICT 활용을 가장 많이 신장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미 한국, 태국, 터키 등 많은 국가에서 아동들에게 교과서 대신 태블릿 PC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 4) 여성과 소녀의 역량 강화

동 이슈는 두가지 측면에서 도전과제가 존재한다. 첫 번째는 ICT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 문제이다. Intel<sup>8)</sup>에 따르면 개도국에서 여성의 인터넷 접속률은 남성보다 25% 적으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이 격차가 45%까지 벌어진다. 또한, GSMA 보고서<sup>9)</sup>는 중저소득 국가에서 여성의 모바일 전화 소유 비율이 남성보다 21% 적다고

8) Intel. 2013. *Women and the Web: Bridging the Internet gap and creating new global opportunities i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Santa Clara, Calif., Intel Corporation.

9) GSMA Development Fund and Cherie Blair Foundation for Women. 2010. *Women & Mobile: A Global Opportunity. A study on the mobile phone gender gap in low and middle*

밝혔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ICT를 통한 여성과 소녀의 교육기회 증대를 위한 노력은 다방면에서 강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UNESCO, 노키아, Bunyad 재단 및 Mobilink가 협력하여 수행한 파키스탄 내 ‘모바일 전화를 통한 문해력 증진’ 프로젝트<sup>10)</sup>는 벽지지역의 여성에게 모바일 전화로 문해력을 지원해 주었으며, 성공적인 사례로 보고되었다.

또 다른 도전과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된다. 많은 국가에서 ICT 부문 관련 직업은 소녀들에게 덜 매력적이거나, 여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직업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인식을 깨고 여성과 소녀가 ICT 부문에서 직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기업, 국가, 국제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ITU의 경우, ICT 부문에서 여성과 소녀의 강화를 위해 ‘Girls in ICT day’를 설립, 3개년 커뮤니티 케이션 캠페인인 Tech Needs Girls 출범, ICT 분야의 훈련·직업기회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Girls in ICT 포탈 개시 등 일련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3) 미래를 위한 정책

이미 많은 국가가 자국의 브로드밴드 정책에서 교육개선을 위한 브로드밴드 활용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브로드밴드/ICT 정책과 교육이 전세계적으로 강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브로드밴드위원회는 여러 나라의 정책사례를 살펴본 후, 전세계, 특히 개도국의 정부와 교육관련 이해관계자가 교육분야에서 ICT의 혜택을 최대한도로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검토하고, 다음의 6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 1) ICT와 브로드밴드에 대한 접속을 증진할 것

정책입안자는 모든 시민, 특히 여성, 소녀 및 소외된 그룹을 위해 ICT와 브로드밴드에 저렴하고 동등한 접근을 가능하도록 하는 여러 부문에 걸친 정책 이행을 위한

*income countries.* London, Authors.

10) So, H. J. 2012. *Turning on Mobile Learning in Asia: Illustrative Initiatives and Policy Implications.*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 2) 직업훈련 및 평생교육에 ICT를 포함시킬 것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높은 청년 실업률 등을 고려하여, 정부는 신규 일자리 창출, 평생훈련 제공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있어 ICT 채택 및 브로드밴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 3) 모든 교사 및 학생에게 ICT 기술 및 디지털 문해력을 가르칠 것

정부는 교육 시스템이 디지털 혁명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이를 재구성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 ICT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사와 학생을 강화하는 것은 교육 및 학습을 개선하는데 핵심이 될 것이다.

## 4) 모바일 학습과 OER을 촉진할 것

정책입안자는 OER(Open Educational Resources, 교육자원공개)<sup>11)</sup>을 개발하는데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모든 형식의 교육에서, 그리고 교육의 모든 차원에서 모바일 기술의 사용이 격려되어야 한다.

## 5) 지역적 맥락 및 언어에 부합한 콘텐츠 개발을 지원할 것

ICT 하드웨어를 준비하는 것은 단지 하나의 항목이다. 지역적 콘텐츠와 지역언어로 제공되는 온라인 교육 어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투자가 또한 필요하다.

## 6) 정보격차해소에 노력할 것

정책입안자는 국제협력 및 파트너십을 증진하여 선진국과 개도국간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11) 교사, 학생들이 교육, 학습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기술기반의 무료 교수-학습 자료.

### 3. 교육 관련 ITU의 활동

교육을 위한 ICT/브로드밴드의 활용과 관련된 ITU의 활동은 1990년대 후반기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5년 이래 ITU는 전기통신개발국(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Bureau, BDT)을 통해 비용효율적인 방식으로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을 시행하는 도구로서의 ICT의 사용을 적극 권장해왔다. 또한 ITU는 WSIS 활동방향 C7. e-Application의 세부 항목인 e-Education을 위한 공동촉진자로서 다양한 연구 및 관련 활동을 수행해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ITU의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인적역량개발 프로그램(Human Capacity Building Programme)<sup>12)</sup>

ITU는 BDT 내에 인적역량개발부(Human Capacity Building Division)를 두고 있으며, 이 부서를 통해 개도국이 추후 마주하게 될 디지털경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인적, 제도적, 조직적 능력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은 이를 위해 1) ITU 개발부문 활동이 다루는 모든 주요 주제에 대한 정보 및 자료 공유, 2) 전 사회 계층의 역량개발을 위한 ICT 러닝 및 훈련, 개발 기회를 전달, 3) 최고 수준의 인적자원 전략 및 관리기법 촉진 등을 수행하고자 하고 있다. 이는 현재 진행중인 정규 프로그램 활동, 특별 프로젝트 및 ITU CoE(Centres of Excellence), 인터넷훈련센터(Internet Training Centres, ITC)와 같은 파트너십을 통해 수행되고 있다. 또한, 요청이 있을 경우, 회원국에게 인적능력 및 관리 개발 부문에 대해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12) <http://www.itu.int/ITU-D/hcb>



## (2) ITU 아카데미 및 관련 이니셔티브<sup>13)</sup>

ITU 아카데미는 BDT 이니셔티브로서, 개도국의 ICT 교육 및 훈련, 개발 기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디지털 전환, 무선 브로드밴드 접속, 사이버보안, 경쟁 및 가격규제, 융합적 규제, 긴급통신, 모바일 기술 및 서비스, IPTV, 보편적서비스 등의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원조는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하여 행사 개최, 대면교육, 원격교육 등의 방식으로 전세계에 전달되고 있다.

ITU 아카데미 산하에서 ITU는 매년 수천명의 개도국 인력을 빠르게 진화하는 통신 및 ICT 환경에 적응하도록 훈련시키고 있다. ITU 아카데미 파트너는 현재 전세계 100개 이상의 훈련·교육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에서 교육 및 훈련, 정보제공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CoE와 ITC를 포함하고 있다.

ITU CoE 이니셔티브는 ICT 부문 훈련 및 교육에 있어 전문가, 자원, 역량개발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CoE는 공공 및 민간부문의 ICT 관리자들에게 통신 정책·규제·운영·기술 관련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또한, 전문적인 개발, 연구, 지식공유 역할을 수행하면서 통신정책 결정시 자문 제공, 지역 전문성 제고, 지역의 연구와 정보화를 담당하는 지역 내의 거점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6개 지역별로 다양한 노드(node)가 구성된 CoE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대면교육, 온라인 훈련세미나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아태지역의 경우 8개의 노드로 CoE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 및 규제, 주파수 관리, 벽지지역 ICT 개발, 비즈니스 관리, 방송, ICT 어플리케이션 및 사이버 보안 등 각기 특정 ICT 주제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중 한국은 부산대학이 CoE를 유치하여 기술 인식(technology awareness) 관련 담당 노드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ITU ITC 이니셔티브는 인터넷 관련 기술향상을 목표로 하는 역량개발 프로그램이다. 인터넷과 IP관련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숙련된 인터넷 및 ‘신경제’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인적자원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교사교육(train-

13) <http://academy.itu.int>

the-trainer) 접근법을 통해 대면 훈련방법과 원격 훈련방법을 모두 사용하는 훈련프로그램 접근을 제공한다. BDT는 ITC의 설립을 위해 공공 및 민간부문의 파트너, 훈련기관, 대학들과 협력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 센터들을 통해 저명한 파트너들이 제공하는 양질의 기술훈련커리큘럼을 접할 수 있다.

ITU 아카데미 이니셔티브는 또한, 'ITU 아카데미 포털'을 개설하여 다양한 훈련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3) Connect a School, Connect a Community 이니셔티브<sup>14)</sup>

ITU는 2009년 10월 열린 ITU TELECOM World Youth Forum에서 “Connect a School, Connect a Community” 이니셔티브를 개시하였다. 동 이니셔티브는 ITU가 개도국 및 전세계 학교의 브로드밴드 인터넷 연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작한 민간 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이다. 이는 학교연결성과 커뮤니티 혜택을 촉진시키는 연계된 정책과 규제 및 기법을 필요로 하는 정부 정책입안가들과 기부자들 및 파트너들 사이에서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파트너는 프랑스, 포르투갈,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있으며, 성공사례에 대한 온라인 툴킷(Toolkit of Best Practices and Policy Advice for Connecting Schools)을 개발하고, 관련 훈련자료 저장소(repository)를 개발하였다. 또한, 니카라과와 같은 국가들이 학교연결성을 위한 국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 (4) 소녀와 여성을 위한 ICT

ITU는 소녀와 성인 여성들의 ICT분야 고용증가를 촉진시키기 위한 협동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련된 인식제고를 위해서 ITU는 매년 4월 넷째 목요일을 국제적인 “Girls in ICT Day(ICT 소녀의 날)”로 제정하고, 소녀와 여성들이 ICT분야에 진

14) <http://www.connectaschool.org>

출할 수 있도록 ICT 관련 모든 기관에게 여학생을 위한 참관일을 운영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ITU는 또한 2012년 제2차 Girls in ICT Day에서 3개년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인 ‘Tech Needs Girls’<sup>15)</sup>를 공식 출범하였다. 동 캠페인은 4개의 E, 즉 권한강화(Empowerment), 평등(Equality), 교육(Education), 고용(Employment)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관련 장학금 프로그램 운영, 콘테스트 및 시상식 개최, 훈련 및 인턴십 기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ITU는 2012년에 ‘Girls in ICT 포털’<sup>16)</sup>을 개시하였다. 이 웹 포털은 소녀와 여성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ICT분야에서의 트레이닝, 직업기회 및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포털은 소녀와 여성들은 ICT분야의 취업을 스스로 대비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장학금 프로그램과 인턴십, 트레이닝 기회, 온라인 네트워크, Girls in ICT Day 활동 및 기타 자료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ITU는 여성들에게 ICT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다양한 멘토링 정보를 제공하며 긍정적인 역할모델을 제시하여 장차 ICT 분야를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ICT 글로벌 여성 네트워크’ 웹사이트(WITNET)<sup>17)</sup>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 (5) 기술이용 학습을 위한 표준 연구

ITU 표준화부문(ITU-T)은 2012년 말 ‘기술활용 학습의 표준(Standards for Technology-enabled Learning)’이라는 제목의 ITU-T 기술 동향 보고서(ITU-T Technology Watch)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최근 교육과 훈련 분야에서 보다 역동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법을 제공하는 도구로 부상하고 있는 기술과 서비스를 다루고 있으며, 교육관련 ICT 기기, 자원 및 콘텐츠, 교사의 기술 및 교실관리, 학습기술 관련 ICT 표준

15) <http://www.techneedsgirls.org>

16) <http://girlsinict.org>

17) <http://www.witnet.org>

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이 보고서는 현재 발생하는 기술-학습제품과 서비스의 개발 및 시행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는데 있어 표준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와 관련하여 기술-학습분야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표준화 작업의 개요를 제공하면서 추가적으로 기술이 풍부한 교육시스템의 시작 및 유지에 대한 최상의 보완 시행 가이드라인이 있는 기술표준들을 추천하고 있다.

## 4. 결 어

본 고에서는 브로드밴드위원회가 작업반을 통해 제안한 ICT가 교수 및 학습에 있어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키고, 동등한 교육기회의 증진 방법을 검토하였다. 또한, ITU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ICT부문 교육·훈련 및 교육과정에 있어 ICT의 활용에 관한 일련의 활동을 확인하였다.

UN 기구로서 ITU, UNESCO는 교육 분야에서의 ICT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기 전문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공조하며 관련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ITU는 ICT 관련 전문성을 기반으로 ICT부문 교육을 다양한 온·오프라인 방법 및 파트너십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ICT를 활용하여 개도국, 여성, 벽지지역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그룹의 교육 지원에 힘쓰고 있다. 학교와 커뮤니티를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학교 연결성 확보를 증진시키고 있으며, 더불어, 기술을 통해 가능한 다양한 학습방식 및 표준을 탐구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ICT 활용에 기여하고 있다.

UN의 MDG와 WSIS, 그리고 UNESCO의 EFA의 목표 달성 기한인 2015년까지 2년 남짓 남은 시점에서 목표별 현재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많은 진전사항은 있었으나 여전히 기한 내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국가, 지역별 격차가 여전히 큰 장벽을 형성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위기 등의 영향으로 동 분야에 대한 국제적 지원도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브로드밴드와 같은 ICT가 글로벌 약속의 달성을 촉진하기 위한 도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 더욱 기대되고 있다. ICT의 발달은 개개인과 모든 국가

에게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모든 수준의 교육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모든 시민이 디지털 시대에서 성공적으로 생활하고 작업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ICT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국가, 지역, 글로벌 노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ICT 선도국이자 교육부문에서 ICT를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글로벌 사회의 공동발전을 위해 우리에게 기대되는 역할 또한 크다. 이에 대한 국제적 이니셔티브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의 노력과 모범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며 전 세계적으로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과 노력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태은 (2013), “여성과 ICT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추이와 함의”, 《방송통신정책》, 제25권 6호 통권551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박민정 (2012a), “브로드밴드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적 이슈: 브로드밴드위원회 논의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정책》, 제24권 20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_\_\_\_\_ (2012b), “여성과 ICT, 성격차 해소를 위한 ITU의 노력 그리고 우리” 생각하며 연구하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Broadband Commission (2013). “Technology Broadband and Education: Advancing the Education for All Agenda”.
- ITU (2012). “Standards for technology-enabled learning”, ITU-T Technology Watch Series.
- UNESCO (2012). “The Education for All Global Monitoring Report 2012: Youth and Skills, Putting education to work”.
- [www.itu.int](http://www.itu.int)
- [www.broadbandcommission.org](http://www.broadbandcommission.org)
- [www.unesco.or.kr](http://www.unesco.or.kr)